



한국출판학회 제29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출판학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출판 발전 방안 모색

한국출판학회(회장 윤세민)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부터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에서 ‘출판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제29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을 비롯해 이정춘·이종국 고문 등 40여명의 출판인회원이 참가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이날 행사는 윤세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의 축사, 이정춘·이종국 고문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윤세민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를 출판학의 과거, 현재, 미래로 정한 것은 학문공동체인 우리 학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자는 의미와 함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출판학의 발전과 출판산업의 미래를 견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이번 주제발표를 맡은 부길만 교수를 비롯해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고영수 출철 회장과 윤철호 출판인회의 회장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설계한다. 출판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하는 이번 학술대회 역시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학문으로 자리잡은 출판학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는 출판산업과 출판학의 미래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춘·이종국 고문 역시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인 안춘근 선생은 역사를 잊으면 뿌리없는 꽃을 기르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남겼다. 뿌리가 없는 꽃은 생명이 없는 꽃이다. 출판학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기학술대회는 김진두 서일대 교수(학회 학술이사)의 사회로 부길만 동원

대 교수(학회 명예회장)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남석순 김포대 교수(학회 고문), 김정숙 백제예술대 교수(학회 편집이사),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 교수(학회 이사), 신종락 성균관대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학회 이사)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출판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부길만 교수는 ‘출판학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발표에서 “출판 자체는 인류의 기록문화와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96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 출판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출판학의 과거는 안춘근 저술의 ‘출판개론’이 나온 1963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는 2010년부터 최근 5년간의 활동”이라고 구분했다.

1963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판학은 연구의 성격과 연구의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1963~1981년까지를 개척기, 1982~1999년까지를 정착기, 2000~2009년까지를 발전기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중 제1기에서 제2기로 넘어가는 1981년에는 중앙대를 선두로 특수대학원에서 출판학 전공 석사과정 이 속속 생겨났고, 1982년부터 학회지 '출판학'을 증면해 '출판학연구'로 제호를 바꿔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출판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제3기인 2000년 이후에는 연구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출판학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교과서, 잡지, 역사, 국제문제, 저작권, 지역출판, 노인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자출판 및 전자책 이용 연구, 국제 출판교류 및 외국 출판 연구, 출판역사 연구, 독서 요인과 독서운동 연구, 출판학 연구경향 및 출판교육 방향 제시 등 5가지 주제가 양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판학의 미래는 역사적 특성과 시대의 흐름을 감안해 한국화, 국제화, 종합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국화란 학문의 토착화와 같은 맥락으로 출판학 정립을 위해 서구 이론이나 학문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의와 이론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출판학의 태동자체가 학문적 관심보다는 우리의 출판현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현상이다. 두 번째 국제

화란 학문의 국제교류를 통해 출판과 출판학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출판학의 선구자들은 초창기부터 학문의 국제화를 통해 적극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학문의 세계에서 토착화와 국제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내기는 드문 일인데, 출판학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 종합화는 출판학이 종합 학문적인 특성을 띠면서 학제학의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다.

부길만 교수는 "출판학이 시작되던 1960년대와 현재는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출판학을 위한 논의의 틀은 오히려 21세기에 더욱 어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문화적으로 우리 고유의 장점을 찾고 내세워야 하는 것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특색있는 문화를 해외로 전파하고 상품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런 점에서 문화의 창조와 전파에 가장 적합한 출판이야말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화의 흐름 역시 거침없이 빨라지는 지금 학문의 세계에서 더욱 앞장서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화의 특성 역시 창의성을 위해 융합과 통섭이 강조되는 시기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화 또는 통섭의 과제는 출판학 연구의 발전에서 더욱 요구된다. 보다 가변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로 변해가는 오늘날의 흐름에서 타학문과의 교류 또는 학제학 특성

을 지녀온 출판학은 이제 그 전통을 더욱 살려서 우리 사회와 문화를 새롭게 통찰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석순 김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출판학 연구는 출판물의 제작, 생산, 유통의 협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출판현상의 사회적인 의미까지 탐구하는 광의의 출판학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자리잡은 2000년 이후 출판학 연구는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했으며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연구방법론 역시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출판이 디지털시대에 와서 기술적인 측면 확장에서 적응이 부족했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독자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부응해 종이책과 전자책이 각각의 장점을 잘 살린 상생을 통해 출판산업이 발전하려면 출판학의 외연과 더불어 내연의 개념적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판학 개념에 대한 내연의 확장이야말로 가치 지향적인 출판이 그 위치를 지키면서도 꾸준히 변화하는 다양한 산업 기술과 융합하며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핵심기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출판산업의 고도화 추구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윤세민 회장

축사를 하는 고영수 출판 협회장

축사를 윤철호 출판인회의 회장

격려사를 하는 이정춘 고문

격려사를 하는 이종국 고문